

상세 해설

1번 정답: ②

이 글은 동형이의어로 인해 독자가 겪는 의미 확정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고빈도 단어 우선 검토, 제약성 고려, 문맥적 판단 등)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글 전체가 문제 제기 → 해결 과정 설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동음이의어는 동형이의어와 대비하여 정의만 제시되었을 뿐 장단점 분석은 없다.
- ③번: 고빈도 단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의미 확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설명했다.
- ④번: 일반적인 단어 의미 결정 원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동형이의어라는 특수한 경우의 의미 확정 과정을 설명했다.
- ⑤번: 동형이의어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

2번 정답: ③

지문에 따르면 독자는 동형이의어를 읽을 때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먼저 떠올린다. 일반적으로 '눈(目)'이 '눈(雪)'보다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두 문장 모두에서 독자는 먼저 '눈(目)'의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그 후 문맥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답 분석

- ①번: 문장 A는 "눈을 다쳤다"만으로는 신체 부위인지 날씨 현상인지 즉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약성이 약하다.
- ②번: 문장 B는 "길이 미끄럽다"는 표현으로 인해 '눈(雪)'으로 의미가 확정되므로 제약성이 강하다.
- ④번: 문장 A에서 독자는 고빈도 단어인 '눈(目)'을 먼저 떠올린 후 적합성을 확인할 것이다.
- ⑤번: 문장 B는 제약성이 강해 '눈(雪)'으로 의미가 확정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3번 정답: ②

①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지문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독자는 먼저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검토한 후 그것이 문맥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의미를 찾는다.

오답 분석

- ①번: 모든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빈도 단어 의미를 우선 고려한다.
- ③번: 제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과정이다.
- ④번: 사용 빈도(고빈도 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다.
- ⑤번: 올바른 발음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적절한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4번 정답: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지문에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①번이 정답이다.

오답 분석

- ②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자율적 조절 기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표현은 과도한 일반화이다.
- ③번: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중시한다.
- ④번: 지문 마지막에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⑤번: 각 모델의 한계는 언급되지만, 단독 적용의 어려움을 직접 논한 것은 아니다.

5번 정답: ③

각 법 모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이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 개입,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적극적 개입과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 협상 절차 마련이 핵심이다.

오답 분석

- ①번: 부분적으로 맞지만 절차주의적 모델의 특성이 누락되었다.
- ②번: 자유주의적 모델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④번: 사회복지국가적 모델과 절차주의적 모델의 특성을 뒤바꾸었다.
- ⑤번: 세 모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각 모델의 고유성을 부정한다.

6번 정답: ④

지문에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증금 상한액 초과 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예외 없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 등 예외가 있다.
- ②번: 지문에서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③번: 갚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갚신을 거절할 수 있다.
- ⑤번: "갚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7번 정답: ③

㉠의 단순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주의적 모델의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최고난도 문항이다. 단순한 법 규범이 문화적 규범을 침범→자율적 조절 기능 훼손→법 의존도 증가→더 많은 법적 개입의 순환 구조이다.

오답 분석

- ①번: 절차주의적 모델이 법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 ②번: 단순화의 원인을 개인 권리 보장 부족으로 잘못 파악했다.
- ④번: 단순화의 시작점을 잘못 파악했다.
- ⑤번: 단순화의 원인과 절차주의적 모델의 해결 방안을 잘못 이해했다.

8번 정답: ②

계약과 법률의 우선순위가 임차인 보호 필요성과 계약 자유 원칙 사이의 형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지문에서 임차인의 경제력, 임차물의 성격,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답 분석

- ①번: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으로 단순화했다.
- ③번: 법률이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 ④번: 분쟁 발생 가능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번: 사회 전체 이익과 개인 이익의 대립으로 단순화했다.

9번 정답: ③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된다는 한계가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므로 순수한 자유주의적 모델은 아

니다.

- ②번: 조정위원회가 해결책을 직접 제시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 ④번: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
- ⑤번: 조정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10번 정답: ②

지문에서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므로, 액화 수소는 부피 문제는 해결하지만 극저온 유지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경제성 비교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음
- ③번: MCH가 휘발유와 "유사한" 독성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④번: 암모니아는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 이용 가능"이라고 명시됨
- ⑤번: 산화 극과 환원 극의 반응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전기가 생산됨

11번 정답: ⑤

지문에서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고 했으므로, 전기분해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번: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해 MCH 분자 하나가 생성"
- ②번: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 ③번: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 + 수소 원자 3개 구조
- ④번: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고 명시됨

12번 정답: ②

지문에서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보기>에서 전해질 손상으로 수소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환원 극에서 산소와 수소 이온, 전자의 결합이 줄어들어 물 생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오답 분석

- ①번: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며, 도선은 전자의 이동 통로임
- ③번: 수소 이온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화 극에서의 반응도 영향을 받게 됨
- ④번: 전해질은 수소 이온의 이동 통로이며, 산소는 환원 극에 직접 공급됨
- ⑤번: 전해질 손상이 근본 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능 회복 불가능

13번 정답: ④

지문에서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라고 했으므로, 암모니아 6몰이 완전히 반응하면 질소 3몰, 수소 9몰이 생성된다. 따라서 질소 2몰, 수소 6몰이라는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번: 몰비 2:1:3에 따라 암모니아 2몰 → 수소 3몰 생성
- ②번: 전환율 = 반응한 암모니아/공급한 암모니아이므로 0.9 = 90%
- ③번: "부반응은 거의 없다"고 명시됨
- ⑤번: 전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수소 생성

증가

14번 정답: ④

지문에서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인간을 정보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음
- ②번: 인포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
- ③번: 경험주의에서 '있음'은 '경험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
- ⑤번: 뉴턴의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

15번 정답: ⑤

지문에서 경험주의의 '있음'은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되고, 플로리디의 인포그에서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번: 갑, 을, AI 모두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인포그에 해당함
- ②번: AI가 갑과 을의 서로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하여 제공하는 것은 추상화 층위의 작동 원리
- ③번: AI는 갑과 을의 정보에 의해 학습하여 변화(대상)하고, 동시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주체)함
- ④번: 인간중심주의는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AI를 도구로 간주

16번 정답: ②

지문에서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며,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주체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되므로 모든 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음
- ③번: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인식
- ④번: 허구가 아니라 '구성'된 것. 지문에서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라고 명시
- ⑤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첩된 전체 인포스피어에서 작동

17번 정답: ③

<보기>에서 플로리디는 "목적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었을 뿐이죠"라고 말했다. 지문에서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플로리디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주체의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오답 분석

- ①번: 대상이 다른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구성되는 것
- ②번: 지문에서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도 아니다"라고 명시
- ④번: 왜곡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이 인식되는 것
- ⑤번: 편견 배제가 아니라 목적에 따른 선택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봄

출제 의도: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 핵심 개념들(인포그, 상호 연결성, 추상화 층위,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하며, 기존 철학적 관점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18번 정답: ㉔

이 문항은 서술 방식과 구성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A]는 '나'와 친구의 대화를 통해 지계꾼 청년의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액자식 구성을 보여줍니다. 친구가 은행에서 목격한 청년의 모습과 행동을 '나'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물(친구)의 시선을 통해 타인(청년)의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B]는 '나'가 표구된 편지를 확실히 걸어두고 2년간 바라보면서 점차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장난으로 여겼던 편지가 '화실의 중심'이 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답 분석]

①번: [A]는 대화를 통한 간접 제시가 맞지만, [B]는 내면 독백이 아니라 서술자의 관찰과 성찰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②번: [A]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지 않고 친구의 회상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며, 인과관계도 명확합니다.

③번: [A]는 외부 서술자가 아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객관적 평가가 아닌 대화를 통한 간접 제시입니다.

④번: [A]는 친구의 관찰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인물의 과거사를 드러내는 회상이 아니며, [B]는 미래 전망이 아닌 현재의 깨달음을 서술합니다.

19번 정답: ㉔

<보기>를 활용한 감상 문항으로, 작품의 주제 의식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⑤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나'가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는 것이 '서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가 편지를 가져온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편지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친구와 '나' 사이의 이해는 서민의 삶에 대한 공감이나 아니라, 편지가 지닌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청년이 '씨' 자가 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인정 경험으로 해석됩니다.

②번: 문법적 오류가 있는 편지에서 어머니의 진심이 더 절실하게 드러난다는 해석은 <보기>의 주제 의식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③번: '국보급' 표현이 농담에서 진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숭고한 가치 발견과 일치합니다.

④번: 편지가 화실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와 부합합니다.

20번 정답: ㉔

이 문항은 작품의 핵심 소재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국보급'이라는 표현의 의미 변화를 가장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가 표구사에 '국보급'이라고 말할 때는 친구의 호기심어린 요청에 동조하는 과장된 농담이었지만("얼버무렸다"), 표구된 편지를 2년간 바라보며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고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는 편지에 담긴 모성애와 삶의 진실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한 '나'의 인식 변화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①번: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다는 출처가 편지의 가치 인정을 방해한다는 해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작품 후반부에서 '나'는 편지가 "그림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다"며 진정한 예술품으로 인정하고,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고 진심으로 평가합니다.

②번: '나'가 편지에 흥미를 보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문법적 오류와 어법상의 불완전함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지문에서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나'의 흥미는 편지의 소박한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 어린 행동 때문이지 문법적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④번: 가치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해석이 틀렸습니다. '나'의 2년간의 성찰과 시간을 통한 능동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⑤번: 거친 문장과 맞춤법 오류가 진정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라는 해석은 틀렸습니다. 작품은 이러한 형식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진정성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줄 뿐, 오류 자체가 긍정적 요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1번 정답: ㉔

편지를 인용한 서술 방식의 효과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③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편지 내용의 분절적 제시가 '서술의 긴장감 유발'을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처음 소개될 때부터 주요 내용("우물집할머니...", "돈조타...")이 드러나며, 이후 반복 제시될 때도 새로운 정보보다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나'의 달라진 시선이 중요합니다. 작품은 서스펜스나 긴장감보다는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돈조타. 그러나..."라는 구절에 처음엔 주목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부각되는 등 '나'가 주목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②번: 처음엔 "비시시 웃음"을 자아냈으나 나중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서 변화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 ④번: 동일한 텍스트가 시간의 경과와 '나'의 성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수용 미학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 ⑤번: 편지 내용(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시선은 변화하여 효과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22번 정답: ㉑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서로 다른 시대와 갈래의 기행 문학이 지닌 서술 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행 가사와 근대 기행 수필의 갈래적 특성이 서술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해설]

(가)는 조선시대 기행 가사로서 객관적 사실 기록을 중시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십일 일 조반 후에"와 같이 구체적인 일시를 명시하고, "오 리 남짓 가니", "칠십 리 왕복"처럼 정확한 거리를 제시하며, "만 이천 봉"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통해 금강산의 규모를 기록합니다. 이는 기행 가사가 실용적 정보 전달과 기록의 기능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나)는 일제강점기 기행 수필로서 글쓴이의 주관적 감상과 철학적 성찰이 중심이 됩니다.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는 개인적 감탄,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는 주관적 인상,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라는 철학적 성찰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근대 수필이 개인의 내면과 주관적 체험을 중시했음을 나타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가)에서 "~하다", "~하네" 등의 현재형 종결어미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과거 시제 활용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 역시 "송전은 출발 그대로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등 현재형과 "정하다", "나섰다" 등 과거형을 혼용하고 있어 현재 시제만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 ③번: (가)에서 타인과의 대화(지로승, 주막 주인)가 나타나지만, 이는 만물초 유람 포기의 실용적 조언일 뿐 '여행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의 내적 독백도 여행 자체의 의미보다는 달을 보며 인간 존재의 왜소함을 성찰하는 내용이므로 '여행의 의미 심화'와는 다릅니다.

- ④번: (나)도 송전이라는 한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낮에는 거리와 바닷가를 거닐고, 밤에는 다시 여관을 나와 달밤 산책을 하는 등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으로 오다"라는 부분에서도 이동이 확인됩니다.

- ⑤번: (나) 역시 송전의 출발을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라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달밤의 풍경을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며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와 같은 강렬한 감정 표현이 나타나 절제된 정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23번 정답: ②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작품의 세부 부분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부분의 서술 방식, 표현 기법, 정서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잘못된 분석을 변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정답 해설] ②번이 틀린 이유는 [B]에서 화자가 타인의 만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정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B]에서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라"라며 만류하자, 화자는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만물초 유람을 포기합니다.

이는 타인의 만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한 것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라는 표현에서 아쉬움은 드러나지만,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존중하여 무리한 유람을 포기하는 현실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시대 기행 가사에 나타나는 집단적 가치관과 현실 순응적 태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A]의 "뿔으며, 들썩이며"는 시각적 이미지와 운동감을 통해 화룡담의 생동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자와 화룡의 대화 전설은 자연물 간 관계에 상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③번: [C]에서 송전(松田)은 '출발'과 관련된 지명이며, 글쓴이는 술을 봄에, 모래를 가을에 빗대어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④번: [D]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은 주관적 평가이며, "흔레 식장 길 같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철봉에 매달린 즉흥적 행위는 글쓴이의 활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번: [E]에서 달빛은 길, 출발, 철로, 바다를 거쳐 사막·빙원·우주로 확장되며,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에 도달합니다.

24번 정답: ④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작품의 핵심 부분에 나타난 화자와 글쓴이의 정서와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5개의 원문자를 활용하여

각각에 담긴 정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되, 문맥과 표현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는 ㉠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어 있다'는 표현은 바다가 지닌 생명력과 활력,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바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신선함과 생동감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 것이지, '두려움과 경계심'과는 정반대의 정서입니다. 글쓴이는 바다의 역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으며, 이는 앞 문장의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긴다"는 감각적 묘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는 만물초라는 명승지를 유람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와 기대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준비하고 내려가니'라는 표현에서 능동적 행위 의지가 확인됩니다.

②번: ㉢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에서 '작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별의 아쉬움을 내포하며, 이어지는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는 떠나면서도 금강산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미련을 보여줍니다.

③번: ㉣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는 최상급 표현으로, 송전 길의 아름다움에 대한 극찬입니다. '정하고 고운'이라는 형용사와 '일찍이 ~ 없다'는 구문이 감탄과 찬미의 정서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⑤번: ㉤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에서 '무섭도록'이라는 부사는 달의 압도적 크기와 초월성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주적 존재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자각하는 철학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25번 정답: ③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기행 문학의 시대별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문학사적 지식을 작품 이해에 적용하되,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는 <보기>에 제시된 기행 문학의 특징과 정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의 화자가 만물초 유람을 포기하는 것은 "자연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태도"가 아니라 자연 조건에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날 흐리고 안개 덮여"라는 악천후 상황에서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라"라고 만류하자, 화자가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포기하는 것은 <보기>의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존중하는 집단적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둘째, (나)의 글쓴이가 밤에 산책하는 것은 "집단주의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라 <보기>의 "개인의 주제적 체험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표현입니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는 서술은 타인의 시선이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흥을 따르는 개인주의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①번: (가)의 화자가 화룡담 전설을 소개하는 것은 <보기>의 "전설이나 설화를 수용하여 공간에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 방식입니다. (나)의 글쓴이가 철봉을 '초현실파의 그림'에 비유하는 것은 <보기>의 "서구의 예술 사조나 지식을 수용하여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근대적 방식입니다.

②번: (가)의 화자가 '봉래의 후약'을 언급하는 것은 봉래산의 불로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의 "신선 사상 등 도교적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나)의 글쓴이가 '무인고도', '남북극지의 빙원' 등을 상상하는 것은 <보기>의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성찰하는 근대

적 사유"를 보여줍니다.

④번: (가)의 화자가 '만 이천 봉'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기록하는 것은 <보기>의 "여정의 구체적 기록을 중시"하는 기행 가사의 특징입니다. (나)의 글쓴이가 인간을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보기>의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성찰"하는 근대적 사유입니다.

⑤번: (가)의 화자가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라며 타인의 만류를 수용하는 것은 <보기>의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존중하는 집단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나)의 글쓴이가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홀로 나서는 것은 <보기>의 "개인의 주제적 체험을 중시하는 근대적 개인주의"를 보여줍니다.

26번 정답: ㉔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서로 다른 시대의 기행 문학에 나타난 자연 인식 방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작품에서 화자와 글쓴이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정답 해설]

㉔번이 정답인 이유는 두 작품의 자연 인식 방식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가)의 화자는 화룡담 전설에 대해 "들으니 그럴듯해"라고 하며 자연의 신비로운 면모에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슬비 계속 내려", "날 흐리고 안개 덮여"라는 현실적 조건 앞에서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만물초 유람을 포기하는 현실 순응적 태도를 보입니다.

(나)의 글쓴이는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달의 물결이 싸- 싸-하고 흠어지는 것 같다"며 달의 무한한 아름다움에 매혹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라며 자연의 초월성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가)의 화자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날씨에 순응하여 계획을 포기하는 등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라는 아쉬움의 표현도 있어 단순한 정복 의지로 볼 수 없습니다.

③번: 집단적 체험과 개인적 성찰의 대비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두 작품의 자연 인식 방식의 핵심적 차이는 아닙니다. (가)에도 화자의 개인적 감상이 나타나고, (나)도 완전히 개인적 성찰만은 아닙니다.

④번: (나)의 글쓴이는 "무섭도록 무심하구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친밀한 교감을 시도'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⑤번: (가)도 화룡담 전설을 통해 주관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나)를 단순히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입니다. (나)는 예술적 감상을 넘어 철학적 성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7번 정답: ㉒

이 문항은 인물의 심리와 행동 동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인 ㉒가 틀린 이유는, 지문에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감정으므로, 우양 공주는 진옥이 부마되기를 피한 것을 **못마땅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옥을 해치려는 악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 노인이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번: 진옥이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라며 난감해하다가 부친의 "어찌 거역하리오"라는 말에 따라간 것에서 확인됩니다.

③번: 용왕이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라고 직접 밝힌 것에서 확인됩니다.

⑤번: 진옥이 "오행에도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라며 일자 장사진을 선택한 것에서 상극의 원리를 활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28번 정답: ㉓

이 문항은 작품의 핵심 대목들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정답인 ㉓가 틀린 이유는, ㉓에서 진옥이 "오행에도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계의 병법 지식인 오행상극의 원리를 초월계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장들이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고 칭찬한 것도 진옥의 지략이 수부에서 통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계의 지식이 무용하다거나 신비한 힘에 의존한다는 설명은 지문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동자가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라고 전하며 진옥을 수부로 안내하는 것은 인간계와 초월계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입니다.

②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에서 존재적 차이 인식 이,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에서 교류의 어려움 인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③번: "만일 병사를 소멸하면 수부의 주인이 될 것이요"라는 용왕의 약속은 인간에게 수부의 지배권을 준다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④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에서 진옥의 거부가 우양 공주의 시기와 모함의 원인이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9번 정답: ㉑

이 문항은 <보기>의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심층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㉑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진옥이 '동해군'에 봉해진 것은 용궁 내에서의 지위이지 현실계에서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서는 타계 체험이 '현실계로 복귀한 후'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고 했는데, 동해군 봉작은 아직 용궁에 있을 때의 일이므로 현실계 지위 상승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 폭풍으로 인한 표류가 용궁 진입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②번: 용궁의 이상적 묘사는 타계의 초월성을 부각합니다.

④번: 진옥의 부재 중 우양 공주의 모함이 진행되는 것은 타계 체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⑤번: 진옥이 풍운조화를 부러 동국 용왕을 제압한 것은 영웅적 능력의 발휘를 보여줍니다.

30번 정답: ㉒

이 문항은 <보기>의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㉒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진옥이 용왕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충과 효의 덕목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덕목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진옥은 부친의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라는 권유를 따

름으로써 '효'를 실천했고, 용왕이라는 권위에 순응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충'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덕목이 무력화되었다는 해석은 지문 내용과 반대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진옥이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라며 주저한 것은 현실적 질서와 초월적 질서 사이에서 겪는 내적 시련을 보여줍니다.

②번: 동국 용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전형적인 외적 시련 극복의 사례이며, 이를 통해 초월계에서도 영웅성을 입증했습니다.

③번: 진옥이 표풍하여 부재한 상황에서 우양 공주의 모함이 진행되는 것은 주인공 개인의 능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시련입니다.

⑤번: 진옥이 인간 원수에서 '동해군'이라는 수부의 신적 존재로 봉해진 것은 초월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재정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31번 정답: ④

이 문항은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나)는 '하잘것없는'과 '위대한', '한 송이'와 '무한한', '멀하지 않을'과 '죽도록' 등 대조적 개념어를 의도적으로 병치시킵니다. 특히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이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설적 진술은 미약한 개체가 지닌 영원한 생명력이라는 모순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답 분석]

①번: (가)에서 화자는 마을에 들어와 살구꽃을 만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이를 '만남과 이별의 과정'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화자는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속 살구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번: (가)에서 '꽃구름'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포착하려는 것이지 '집착'이라는 부정적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③번: (나)는 산문시 형식으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와 같이 긴 호흡의 복문 구조가 특징적입니다. 급박한 심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⑤번: 두 작품 모두 수미쌍관 구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32번 정답: ⑤

이 문항은 주요 시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당위성을 표현합니다. 화자는 달래꽃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피어나듯이, 인간의 사랑 역시 그러한 우주적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죽도록'은 사랑의 강도와 절실함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며, '-해야 하는 것이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화자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구절은 달래꽃의 '위대한 역사와 힘'(2연)과 평행 구조를 이루며, 달래꽃이 영속적 생명력을 지니듯 사랑 또한 그러한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달래꽃의 생명력과는 달리"라는 선지의 표현은 시의 논리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은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라는 설의법을 통해 꽃의 유한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짧은 생애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②번: ㉡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계 매달려 있다면'은 '달포 뒤쯤'이라는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의 화려한 '꽃구름'이 생명력을 잃고 쇠락한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생동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③번: ㉢ '아 하늘의 기둥들'은 살구나무를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인식한 것입니다. 감탄사 '아'와 함께 화자가 발견한 생명의 숭고함이 집약적으로 표현됩니다.

④번: ㉣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이라는 개체적 한계를 넘어, 그것이 체현하는 생명의 원리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단언적으로 드러냅니다.

33번 정답: ①

이 문항은 유사한 표현 기법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은 '다사롭게 타고르는 햇볕', '보드라운 바람', '벌나비', '알 수 없는 마음' 등 달래꽃을 피어나게 하는 외부 요소들의 조화로운 작용을 열거합니다. 반면 ㉡는 '긴긴 역사',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등 달래꽃이 '얼어 붙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기까지 겪어 온 시련과 그것을 극복한 생명력을 형상화합니다.

[오답 분석]

②번: ㉡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달래꽃을 존재하게 하는 우주적 조건들입니다.

③번: ㉢는 위협 요인이 아닌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입니다.

④번: 우연과 필연의 대립 구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⑤번: ㉤도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달래꽃의 속성을 서술한 것입니다.

34번 정답: ④

이 문항은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시구의 함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는 사랑의 덧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절대적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죽도록'은 사랑의 강렬함과 절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해야 하는 것이다'는 달래꽃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피어나듯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를 드러냅니다.

특히 화자는 달래꽃을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긴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개체의 유한성을 넘어선 생명의 영속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선지가 제시한 '달래꽃의 유한성을 강조'한다는 해석은 시의 핵심 메시지를 정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뒤돌아보는 행위는 지나간 순간을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②번: '낡은 귀신들'은 시든 꽃의 모습으로 현재의 한시성을 상기시킵니다.

③번: 미약한 존재의 영속성이라는 역설적 인식이 정확히 표현되었습니다.

⑤번: 두 시 모두 유한과 무한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제시합니다.